



오늘의 새싹을 키우는 교육의 뿌리
초등교사노동조합



선생님의 든든한 울타리
대전교사노동조합

날 짜 : 2024.06.25.(화)
발 신 : 초등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수 신 : 교육담당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수경 / 문의 : 010-3072-2349 / estu20@naver.com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윤경 / 문의 : 010-4229-0042 / djtu042@gmail.com

[성명서]

故 대전용산초 교사 가해자 재수사 촉구, 피해자는 세상을 등졌는데 가해자는 없는 현실 개탄!

- 대전시경찰청은 전면재수사하라!
-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 인정할 수 없다!
- 교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란 말이냐!
-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결과 참담하다.

1. 지난 9월 7일, 교권침해로 인해 대전용산초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당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고인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이 확인 되었다.
2. 숨진 A교사는 2019년 당시 근무하던 대전관평 초등학교에서 담임으로 가르치던 1학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했는데, 교사가 이를 제지하고 훈육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학부모들은 계속 해서 수차례 악성 민원을 넣었고 이는 피해 선생님이 해당학교를 떠날 때까지 근 4년 동안 계속 되었다. 심지어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기도 했다. 그 긴 시간동안 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인이 되었다.
3. 이에 작년 10월5일 유가족은 당시 교사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은 관리자와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악의적 민원을 넣으며 고인을 모욕하는 언사를 지속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하지만 오늘 경찰은 관리자와 학부모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 유가족 측은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문제 삼아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에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음이 분명한데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한 블라인드 사이트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도 올라왔는데 해외 사이트라며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부실 수사라며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5. 대전교사노조(위원장 이윤경)는 ‘4년 간 지속되어온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침해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사회적 문제가 낳은 비극이다. 고인이 편히 잠들 수 있고 남은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와 매우 개탄스럽다. 가해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6. 초등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은 ‘반년을 넘게 기대려 온 결과가 가해자 무혐의라니 황당하고, 분노가 치민다. 서이초선생님도 대전용산초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한 교권침해가 있었고 그로 인한 교사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 사람도 없다는 현실에 교단에 설 힘이 사라진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되고,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7. 이에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하나. 대전시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 하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 인정할 수 없다.
 - 하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부실 수사 규탄한다.

대전교사노조는 초등교사노조와 함께 7월 1일, 대전시경찰청 앞에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 6. 26.



선생님의 든든한 울타리

대전교사노동조합



오늘의 새싹을 키우는 교육의 뿌리
초등교사노동조합

